



“마약을 하지도 권하지도 않았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연예계 은퇴를 넘어
인생 부정당하는 것

“결단코, 결단코 마약을 하지도, 권하지도 않았다.” 가수 박유천이 1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된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는 자필 입장문을 읽고 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에게 “마약을 권했다”는 의심을 받아온 가수 박유천(33)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유천은 10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도, (황 씨에게) 권하지도 않았다”며 황 씨와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앞서 황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 권유로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2017년 황 씨와 교제한 박유천이 해당 연예인이 아니냐는 일부의 시선을 받았다.

헬썹한 얼굴의 박유천은 이날 흰 셔츠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회견장에 나타나 직접 쓴 입장문을 읽었다. 그는 “황 씨가 지목한 연예인이 저인가 하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다.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이어 “아니라고 발버둥쳐도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공포가 찾아왔다”며 울먹인 그는 “결단코” “결단코”라는 단어를



가수 로이킴이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스

를 두 번이나 힘주어 말하며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결백함을 호소했다.

박유천은 2016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를 받고 자숙한 후 최근 재개하기 위해 “하루하루 채찍질을 하면서 고통을 견디고 노력했지만, 그런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마약을 생각하거나 복용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에 절박한 마음”이라며 경찰에서도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박유천은 황하나와 교제한 2017년부터 지난해 초 헤어질 때까지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결별 후 황 씨가 찾아와 하소연할 때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처방받은 수면제로 잠을 든 적이 많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황 씨도 우울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 약과는 관련이 없다”며 “제게 마약 전과가 있거나 불법적인 약을 복용 중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돌이켰다.

이에 앞서 또 다른 마약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미국 출신 방송인 로버트 할리(하일·60)에 대한 영상실질 심사가 이날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그는 이날 초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8일 체포됐다. 그는 “가족과 동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가수 정준영(30) 등이 있는 스마트폰 메시지 단체대화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로이킴(김상우·26)이 이날 오후 2시45분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학업을 위해 머무르던 미국에서 몰래 귀국한 지 하루 만이다.

수척한 얼굴에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저를 응원해주신 팬들과 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음란물은 본인이 직접 촬영했다” “음란물 유포가 불법인 줄 몰랐다” “마약 검사에 응할 생각 있다”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로이킴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에서 마약류를 지칭하는 은어가 수차례 사용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연 기자 anjjoy@donga.com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5월 개봉하는 영화 '기생충'

기생충에 쏠리는 시선

10년만에 나온 봉준호표 한국영화
송강호와 4번째...칸 초청 가능성도

봉준호 감독이 가족 희비극으로 돌아온다. 기발한 상상력과 허를 찌르는 통찰로 관객을 사로잡아온 그가 햇수로 10년 만에 온전히 국내 자본 및 제작진과 협업한 '기생충'을 내놓는다.

5월 말 개봉하는 '기생충'(제작 바른손이앤에이)은 올해 한국영화 기대작을 거론할 때 가장 먼저 꼽히는 작품이다. 영화계에서 유일무이한 팬덤을 가진 봉준호 감독의 신작, 정체를 간파하기 어려운 이야기, 배우 송강호와 맞춘 네 번째 호흡,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 가능성 등이 맞물리면서 관심을 키우고 있다. 이에 더해 2013년 '설국열차'부터 2017년 '옥자'까지 한동안 해외 자본과 협업을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주력해온 그가 '마더' 이후 내놓는 한국영화란 사실로도 시선을 붙잡는다.

'기생충'은 구성원이 전부 '배수'인 기택 가족의 이야기다. 장남이 고액 과의 면접을 보기 위해 박 사장 집을 찾아가면서 시작한다. 봉준호 감독은 이들 두 가족의 만남이 겹칠 수 없는 사건으로 번지는 과정을 '가족 희비극'으로 칭하고 이야기를 풀어낸다.

송강호는 생활력이 없어도 사랑은 넘치는 기택 역이다. 남편보다 박력 있는 아내는 배우 장혜진이 맡았고, 최우식과 박소담이 두 자녀로 각각 나선다. 배우 이선균과 조여정은 박 사장 부부 역을 맡아 이야기를 완성한다.

특히 '살인의 추억'으로 시작해 '괴물' '설국열차'를 거쳐 봉 감독과 다시 만난 송강호는 지난해 5월18일 시작해 9월19일까지 이어진 '기생충' 촬영을 마치고 "평범하지만 예측불허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긴장과 환희의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개봉을 앞두고 공개한 포스터와 예고편은 관객의 호기심을 한껏 자극하는 또 다른 배경이 되고 있다. 송강호를 포함해 주요 캐릭터의 눈을 가린 포스터가 풍기는 기묘한 분위기, 독특한 내레이션을 삽입한 블랙코미디 느낌의 예고편이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봉 감독과 송강호 등 배우들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의 한 호텔에서 대규모 제작보고회를 열고 작품을 소개한다. 직전인 18일 오후 칸 국제영화제 초청 여부가 공식 발표되는 만큼 결과에 따라 '기생충'을 향한 관심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리 기자

40대의 관록... '염정아 전성시대'

새 영화 '미성년'서 관록의 연기
김윤석 "촬영장 감싸안은 빅리더"

바야흐로 염정아의 시대다. 과장이 아니다. 최근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펼치는 맹활약은 관록의 40대 배우가 지닌 저력을 엿보게 한다. 다양한 이야기와 장르를 거뜬히 소화하는 실력도 탁월하다.

염정아가 11일 개봉한 영화 '미성년'(제작 영화사레피티)으로 관객 앞에 다시 선다. 지난해 10월 '완벽한 타인'(529만 관객)을 통해 실력을 증명하고, 직후 참여한 드라마 'SKY 캐슬'(최고 시청률 23.8%)로 신드롬에 가까운 열기를 모은 뒤 쉬지 않는 작품 활동의 결실을 차례로 맺고 있다. 그 사이 영화 '뽕반'을 통해 개성 강한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다.

염정아는 '미성년'으로도 기대를 충족시킨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이자 고등학생 딸의 엄마인 그녀는 회피하고 싶은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인물을 완성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눌러 담아야 하는 역할이지만, 연기 베테랑인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최근 정우성, 이정재 등 동료 배우들이 떠나없이 염정아의 이름을 거론하며 활약에 대한 부러움과 기대를 내비치는 상황도 그의 진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염정아는 촬영현장에서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께

작업한 선배배들은 물론 제작진이 이구동성 입을 모아 전하는 내용이다. 이번 '미성년'을 함께 작업한 감독이자 배우 김윤석 역시 염정아를 두고 "현장을 전부 감싸 안는 '빅 리더'였다"며 "배우의 그런 포용력이 촬영장 분위기를 얼마나 좋게 만드는지 모른다"고 돌이켰다.

탁월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흥행까지 일구는 염정아를 향한 러브콜도 이어진다. 현재 영화 '시동' 촬영도 진행하고 있다. 마동석, 박정민과 호흡을 맞추고 이제껏 보인 적 없는 새로운 엄마의 모습으로 관객을 찾는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염정아



김보라

SKY 캐슬 김보라, 잘나가네

웹드라마 1회 조회수 130만
CF에 새 드라마까지 줄줄이

'SKY 캐슬'로 화제에 오른 또 다른 연기자 김보라(24)도 쉬지 않는 활동으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웹드라마 '귀신데렐라'와 tvN 수목드라마 '그녀의 사생활' 출연과 함께 CF계의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고 있다.

김보라는 'SKY 캐슬' 속 비밀을 간직한 고등학생 김혜나 역으로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제대로 받았다. 극중 어른들과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는 등 저돌적인 매력을 발산했다. 선배 연기자

들과 호흡에서도 밀리지 않는 탄탄한 연기력은 "미래가 기대된다"는 호평을 자아냈다. 2005년 KBS 2TV 드라마 '웨딩'의 아역으로 차근차근 쌓아올린 14년 연기 경력이 뒤늦게 빛을 발한 셈이다.

김보라는 직후 웹드라마 '귀신데렐라'에 합류하며 화제를 이어갔다. '귀신데렐라'는 'SKY 캐슬 혜나'의 주연작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1회 만에 13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CF도 연달아 찍었다. 4일 공동제작 '비타500'의 모델로 선정됐다. 'SKY 캐슬'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연기자 김혜윤, 박유나와 LG생활건강 '닥터벨머'의 광고를 찍기도 했다.

연기 행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10일 첫 방송한 '그녀의 사생활'이 그 무대다. '귀신데렐라'에 이어 이번에도 20대 캐릭터다. 성인 연기자로서 입지를 새롭게 다지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행보인 셈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